

▶ 내신 기출, 국어 창비-상편 ◀

1. 독서는 나의 힘

- (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37문제)-----1쪽
(2)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30문제)-----16쪽

2. 문학의 갈래

- (1) 비 (51문제) -----37쪽
(2) 삼포 가는 길 (47문제)-----53쪽
(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43문제)-----79쪽
(4) 보지 못한 폭포 (32문제)-----103쪽

3. 국어와 우리 생활

- (1) 음운의 변동 (66문제)-----119쪽
(2) 한글 맞춤법의 원리 (69문제)-----139쪽
(3)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31문제)-----161쪽

4. 소통하는 말과 글

- (1)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 (32문제)-----175쪽

◆빠른 전체 정답 -----195쪽

◆해설 -----197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문역 정리

◆핵심 정리

갈래	중수필
성격	비판적, 설득적
주제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의 의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의견에 설득력을 더함. •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독자가 화제에 집중하도록 함.

◆구성

처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감소시키는 현실에 대한 비판
중간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
끝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① 호기심 유무에 따른 차이

호기심 ○	↔	호기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력을 키움. • 목표를 이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소, 무관심 • 목표를 잃음.

② 자라면서 호기심이 사라지는 이유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이 고정됨.	→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줄어들음.
주입식 교육, 삶과 무관한 지식을 강요함.	→	호기심과 열정이 사라지고 학업으로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됨.

③ 진정한 앎이 일어나는 과정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함.
▼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군.

④ 우연한 경험으로 적성을 깨달은 예

미국의 천문학자 하이드 해멀은 어릴 때 차멀미가 심했음.
▼
주의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가 별자리를 관찰하기 시작함.
▼
그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짐.

●진정한 꿈의 의미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	직업 그 자체가 아닌, 이상과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가져야 함.
-------------------	--------------------------------------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한 조건



●어느 긴급구호 활동가의 조언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교과서 문제

다음은 글쓴이와 가상으로 면담한 내용이다. 이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우고, 글쓴이의 마지막 말을 짐작해 보자.

*질문자: 성장하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줄어드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글쓴이: 공부가 진학이나 취업의 수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태로 머리에 주입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그렇다면 진정한 삶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식을 일굴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적성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적성을 찾지 못한 청소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라는 이 글의 제목처럼 구체적인 직업이나 전공을 정하지 못했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직업이나 전공이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삶의 목표, 즉 꿈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 바로 가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목표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이므로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조금 늦게 가거나 돌아간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발췌 문제

1. 청소년들이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을 듣고 당혹해하는 까닭을 짐작해 보자.

‘가슴 뛰는 일’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입시와 취업을 목표로 삼고 시험 공부에만 매달려 왔기 때문에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당혹감을 느낄 것이다.

2. 글쓴이가 말하는 ‘열정’의 뜻을 찾아보자.

글쓴이가 말하는 ‘열정’은 ‘꿈을 향해 난 비좁은 샛길을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는 의지’를 말한다. 열정은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가질 수 있으며, 열정이 있으면 어려움을 딛고 나아갈 수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그러한 지적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한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공부에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상황에서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 도구화된 공부는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나) 진정한 앎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갈 수 있다. 그 실마리는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우주 과학 연구소에서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하이드 해럴은 어릴 때 부모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차멀미가 심했다고 한다. 주의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차멀미를 잊을 수 있었다.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어릴 때의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있다.

(다) 얼마 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을 읽었다. 그중 학창 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에 당혹해질 청소년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다.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다. 비행기나 고속 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질러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이라고 써 있어도 괜찮다. 목표라고 써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 적어도 남행선 상에 있으니까.”

(라)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으므로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공색하다.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황에 빠저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학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차라리 목표가 뚜렷했던 수험생 시절이 행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또다시 취직을 겨냥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마)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직업 그 자체를 꿈으로 삼기보다 장차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 사회와 시민 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싶다는 이상을 품어야 한다. 똑같은 의사라 해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적성 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뜻대를 확인했다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기 때문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얼핏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샅길을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전진하는 힘도 바로 그러한 열정에서 솟아오른다.

-김찬호,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대연고등학교 (부산)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② 타인의 글을 인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인생에 대해 깊이 있게 사색한 내용을 담아 독자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한다.
- ④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요 내용을 제시해 독자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 ⑤ 요즘 젊은이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2.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직 내 적성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겠어.
- ② 미래에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겠어.
- ③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해 불안해 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글이겠군.
- ④ 진정한 앎을 얻기 위해서는 관심사를 따라 관찰하고 독서하는 습관을 가져야겠군.
- ⑤ 인생에서 순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군.

대연고등학교 (부산)

3. (다)의 긴급 구호 활동가와 글쓰기가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활동가: 청소년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② 글쓰기: 저도 동의합니다. 성인 중에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만 종사하고 싶은 직업은 대략 정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 ③ 활동가: 목표가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대략 방향만이라도 정할 수 있다면 그것에 따라 무엇인가 시작을 하는 것이 좋아요.
- ④ 글쓰기: 삶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 ⑤ 활동가: 맞아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한 방향만 결정된다면 조금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혹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대연고등학교 (부산)

4. 윗글 (다)의 밑줄 친 '가슴 뛰는 일을 하라'와 관련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가슴 뛰는 일'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 (2) 청소년들이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을 듣고 당혹해하는 까닭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대연고등학교 (부산)

5. 윗글의 글쓰기가 <보기>의 나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고등학교 시절,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남몰래 시를 썼다.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학년이 높아지며 점차 학교생활이 지긋지긋해질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오로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는 듯이 '대학, 대학' 하는 분위기가 싫어지면서였다.

'사람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 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그런 때 시를 만나게 나로서는 굉장한 행운이라 생각했다.

'시를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시는 바로 인생이고, 인생은 바로 시야. 난 기어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쓸 거야.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쓸 거야!'

- ① 대학에 가야 진정한 지성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 ② 시를 쓴다고 자신에게 닥친 현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 ③ 자신이 하기 싫다고 해서 학업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아요.
- ④ 삶과 무관한 지식이 아니라 삶과 연관된 시를 택하겠다는 용기를 격려하고 싶네요.
- 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학을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대연고등학교 (부산)

6.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진로를 성찰하기 위한 세밀한 계획
- ② ㉡: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 ③ ㉢: 진로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표지
- ④ ㉣: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
- ⑤ ㉤: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나 진로

지동고등학교 (경기)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
 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ㄷ.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글쓰기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ㄹ. 일상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ㅁ. 상반되는 학설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저동고등학교 (경기)

8.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열정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할 때 가질 수 있다.
 ㄴ. 꿈을 찾는 것이 어렵다면 직업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이 좋다.
 ㄷ.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매진하다 꿈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ㄹ.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빠르게 쌓는 것이다.
 ㄹ.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괜찮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ㄹ,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ㄷ, ㄹ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소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으므로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궁색하다.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향에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학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던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나)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그러한 지적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한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든다. 공부가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상황에서 지성은 거의 실종되어 버린다. 도구화된 공부는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

(다)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누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이 갈 길을 정했는데, 나는 고등학생이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뭐람?'이라는 생각에 ㉦주눅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30대의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얼마 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을 읽었다. 그중 학창 시

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는 말에 당혹해할 청소년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다.

(라)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A] [무엇보다도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다. 비행기나 고속 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질러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이라고 써 있어도 괜찮다. 목표라고 써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 적어도 남행선 상에 있으니까.]"

(마) 똑같은 의사라 해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적성 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뾰대를 확인했다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기 때문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얼핏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새길을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전진하는 힘도 바로 그러한 열정에서 솟아오른다.

-김찬호,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9. 위 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력을 돕고 있다.
 ④ 서로 대비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대동세무고등학교 (서울)

10. (가)~(마)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직업이나 대학이 인생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
 ② (나): 자라면서 지성이 실종되는 이유
 ③ (다): 진로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
 ④ (라): 목표에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위로의 말
 ⑤ (마): 진정한 꿈의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의 목표

1-(1)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1. ①

▶객관적 수치와 자료가 제시된 것은 아님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인용의 종류 (★★)

ㄱ. 직접 인용: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ㄴ. 간접 인용: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

-엄마가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고 했어.(직접 인용)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간접 인용)

지문에서 인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따옴표에 집중! 다음에, ~(라)고, ~다고, ~다는, ~라는 등의 말에 집중하자

2.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ㄱ.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ㄴ. 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ㄷ. 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2. ⑤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글인데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나아간다는 반응은 부적절함.

3. ②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을 말하는 글쓴이의 생각에 비추어 직업을 미리 정해둔다는 말은 거리가 멀다.

6. ④

▶㉞: 뜻대 앞에 '그'라는 말에 주목해 보면 '그'가 가리키는 말이 이전 문장인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임을 알 수 있음. 그래서 뜻대는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임.

7. ③

ㄷ. 주관적 전달임

ㄹ. 상반된 학설은 없음

8. ②

ㄴ. 직업을 목표 자체로 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ㄷ.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임

9. ⑤

▶글쓴이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인지 글쓴이 자신의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사례 vs 예시 (★)

ㄱ. 사례(실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ㄴ. 예시: 예를 들어 보임.

사례와 예시를 구별하지 않고 쓰기도 하나 이를 정확히 구별해서 쓰는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기에 꼭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2.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대비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의 맥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점만 있어도 대비라고 볼 수 있다.

10. ③

▶(다): 진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현실

12. ⑤

① 명실상부(名實相符): 이름과 실상이 서로 들어맞음.

② 명약관화(明若觀火): 더 말할 나위 없이 명백(明白)함.

③ 시종일관(始終一貫):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관철(貫徹)함.

④ 언중유골(言中有骨): 부드러운 말 속에 분명하고도 핵심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

⑤ 권토중래(捲土重來): 어떤 일에 실패한 뒤 다시 힘을 쌓아 그 일에 재차 착수하는 일.

13. ②

▶공부가 수단으로 전략하고 획일화되기에 지식은 주입되지만 지성은 사라짐.